



2008 벽송선회 '문없는 문' 열었다

이론과 실천 병행, “바로 알고 바로 정진하자”

벽송 두 그루 위에 산새가 우는 고즈넉한 지리산 한 자락 사찰에서 계승이 들려온다.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백여 명의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한데 모여 있다. 수행자에게 결제·해제가 따로 없기에 하안거가 끝난 초가을에도 낮에는 이론을, 밤에는 실천을 한다.

간화선 근본도량 지리산 벽송사에서 9월 6일 벽송선회(선수 월암)가 입재식을 시작으로 3·7일간 수행의 결사에 돌입했다. 2006년에 이어 제2회를 맞는 이번 벽송선회는 비구 34명, 비구니 56명 등 모두 90명의 남자가 9월 6~26일 21일간 산철결제에 들어갔다. 이들은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오전에는 이론을,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는 4시간씩 실천수행하게 된다.

“본래면목 무일물(本來面目 無一物). 마음은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도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입재식에서 덕송총림 수덕사 수좌 설정 스님은 스님들을 격려하고자 ‘본래무일물’ 화두를 제시하는 계승을 읊고, 법문을 시작했다. 설정 스님은 “아무리 좋은 육이

라도 같고 뒤지 않으면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무조건 정진해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바로 알고 바로 정진을 해야 한다”며 “많은 수선남자들이 잘못된 선수행으로 선병에 걸려 고생하고 방황한다. 지리산 벽송사에 모인 남자들은 선의 이론적 토대를 다지고 수행 정진해 선사들의 뜻을 이어받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결제는 한국전통수행방식 선교쌍수 가풍으로 진행된다. 월암 스님은 “벽송선회 이전에 고려 답선법회, 일제강점기 용성 조사 만일참선결사, 성철 스님 백일법문, 가깝게는 서용 큰스님의 참사람결사도 선교결수의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선회에서는 벽송사 선원장 월암 스님의 ‘간화선 수행의 바른 길’, 고우 스님 ‘간화선 수행과 정경’, 해국 스님 ‘조사선- 최상승 수행’, 영진 스님 ‘발심과 실참’, 수불 스님 ‘간화선 수행과 신앙’, 설우 스님 ‘선요’, 지환 스님 ‘간화선 수행’, 법산 스님 ‘한국 선종사’ 특강 등이 열려 수선남자들이 이론을 다진 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전통강원에서는 이론 위주로, 선방에서는 실천 위주로 행해지는 현재 불교승려교육 현실에서 남자들이 모여 큰스님 강의와 토론으로 이론을 쌓고 다시 실천실수하는 선회는 드문 기회이기도 하다. 조실스님이 없는 사찰에서는 선담을 나눌 기회가 없기에 큰스님들과의 선담을 나누고자 법랍 30년부터 초심자까지 연령을 불문한 남자들이 모였다.

선회에 참가한 구미 금강사 해관 스님은 “첫 벽송선회에 이어 두 번째 벽송선회에도 참석했다. 선회는 선이론을 배우고, 스님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어 선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사건으로 전 불교계가 격분한 지금, 역설적으로 중생교화 이전에 수행을 올곧게 하는 수행자 덕목 또한 불교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외부환경에 굴하지 않고 신심과 원력을 다해 선학을 연마하는 벽송선회에서 또다른 ‘호법’의 길이 비춰졌다.

글·사진·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현장속으로



벽송사 선원장 월암 스님 인터뷰

“선의 이론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실천실구함으로 명안종사가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벽송사 선원장 월암 스님은 “선수행은 이론과 실천 어느 것에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벽송선회는 선교결

“선교결수의 새 지평될 것”

수의 새 지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벽송사는 벽송지엄 선사의 개창 후 부용영관을 거쳐, 청허휴정, 부휴선수 양대선맥이 전개된 곳이다. 두 선사 이후 108분에 이르는 조사스님이 탄생해 ‘108조사행화도

량’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승유의 불 시대에도 강원과 선방이 함께 열려 강원학인과 실참남자를 길러냈다”고 설명했다.

신심과 원력을 다해 실천하는 수행도량답게 벽송사는 재가자를 비롯한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도량이다. 월암 스님은 “간화선을 하면 현실에서 행복해져야 한다. ‘간화선은 행복선’을 주제로 10월 말 재가선회를 개최하겠다”며 “재가와 출가자가 함께 하는 무차선회, 템플스테이 등으로 벽송사는 스님들만의 수행공간이 아니라,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수행도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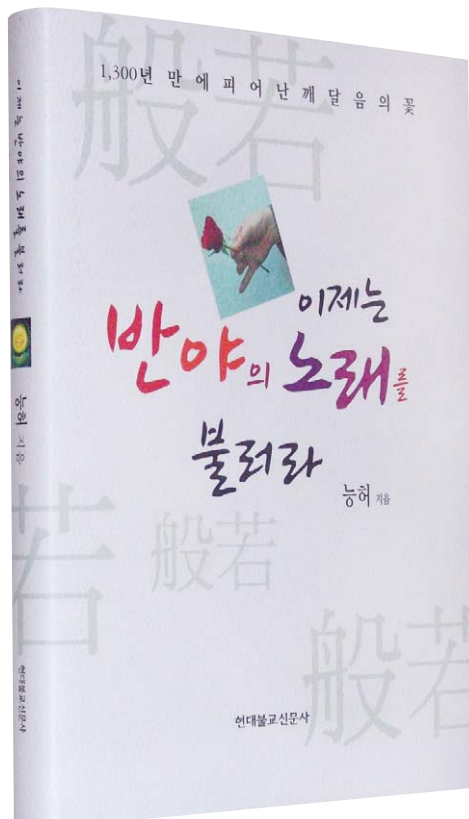
벽송사는 ?

벽송사는 조선 1520년(중종 15)에 벽송지엄 선사가 창건했다. 벽송지엄 선사는 간화선을 제창한 송나라 대에 선사와 임제종을 대표한 원나라 고봉 화상의 종지종풍을 드날린 분으로 후학을 지도함에 있어 <도서><절요><서장><선요>로써 간화참구하게 했다. 오늘날 한국불교전통강원의 사집교과목으로 <도서><절요><서장><선요>가 채택된 것은 벽송산문 영향으로, 벽송사는 간화선 제1조정(祖庭) ‘한국 간화선 근본도량’의 의미를 갖는다.

▶ 전국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덕산탁발화(德山拈鉢話)와 파자소암(破子燒庵)의 두 공안을 다 통과했으니 내가 인가를 안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대장부라네. 자네는 재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확철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바라밀선원장(능허)의 구도여정 그리고 깨달음
등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능허(能虛)거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양장본 / 238쪽 / 값 12,000원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8

1,300년 만에 피어난 깨달음의 꽃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불교의 진면목은 채움이나 비움에 있으며
배움이나 배울 수 없음에 있으며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음에 있으며
언어 문자가 아니라 언어 문자가 끊어짐에 있으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있으며 얕이 아니라 깨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불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경성 성불한 부처만이 알 수 있음을 설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처와 조사가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중요요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입니다.

- 법문 중에서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
큰스님께서 “보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신 뜻이 하나로 통해지면서
눈길에 별명 누워버렸다. 밤하늘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땅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땀이 흘러도 모르고 있다가, 찬바람에 땀이 식어지자
추위가 닦쳐왔다. 그제서야 변혁 정신이 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천하에 부처님과 조사들도 나를 두 번 다시 속일 수 없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조주여! 천 년 사람살이 오늘 나에게 들려 버렸구나!”

- 본문 중에서